30년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불자들은 자비심과 효순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범망경)

법회 안내

용천사 (02)642-207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칠성재일법회 매월 7일(음)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목련불교학생회법회 일 오전11시

호국 원광사 (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40분
사부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인등기도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인천 연산정사 (032)873-10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1~3(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고양 선봉암(0344)387-8445
일반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제주 한마음선원(064)21-486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거사림법회 매월 1·3주 목 오후7시
요전법회 매주 수 오전11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2·4주 일 오전10시30분

고성 옥천사(0556)72-01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낮2시
미타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센 항의'

6일 한통노조간부 연행-38단체 대책위 구성

◇지난 6일 오전8시 조계사에서 11일째 농성중이던 한국통신 노조간부 7명 전원이 전격 침투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구속됐다. (사진=김중근 기자)

공권력이 또다시 조계사에 난입, 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검찰과 경찰이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통노조간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교계는 범불교 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전국불교운동연합·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 총 38개 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6·6 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효림스님)'를 구성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때까지 천주교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종교성지에 공권력 난입과 관련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공개 확약 △ 구속한 한통노조원 즉각 석방, 노사간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 △공권력 투입 책임자 전원 파면 등에 대해 오는 12일 오후1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2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교계 인사 1천명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5일 오후 7시 현시국에 대한 대규모 시국법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도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노조측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아 회사, 정부간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는등 현신적인 중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강한 회의를 느낀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노사 당자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도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로경찰서를 항의방문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고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조계사는 지난해 범종추의 종단개혁촉구시위와 4월10일 승려대회, 지하철노조원의 농성 당시 경찰침탈을 받은데 이어 네번째로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게됐다.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조계사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한통노조 간부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날 11일째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던 노조간부 7명이 연행됐고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던 진관스님이 부상을 당했다.

〈김중근 기자〉

불교정보 유통망 구축…종교계 최초

BBS 정보연구소 DB개발…8월 1일 개통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일반에 서비스하는 불교정보유통망이 생긴다.

불교방송 산하 불교정보연구소(소장 이정)는 한국통신 통신망(HINET·P)에 독자적인 정보유통망 '(가칭)한국불교정보'를 구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정보제공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불교정보연구소가, 추진중인 '한국불교정보'는 불교방송이 지난 해 한국통신으로부터 선정받은 '한국불교정보 DB개발사업'의 일환으로 PC 단말기를 통해 일반에 양질의 불교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연구소측은 자체 정보유통망 구축을 위해 대형컴퓨터(VAX-8800)와 고속프린트, 통신을 위한 모뎀장비 등을 도입하고 한국통신측과 선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불교정보가 제공하게될 정보는 불교정보연구소가 자체개발해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에서 서비스중인 〈불교계 인명록〉〈한국사찰총람〉〈불교역사인물〉〈불교도서목록〉등의 DB이며 〈한국불교역사〉가 새로 제공된다. 〈관련기사 13면〉

이정 연구소장은 "기존의 불교정보서비스는 정보통신 회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보갱신이 6개월이나 걸리는 등 새로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자체 정보유통망을 구축하게 되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일반에 쉽고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정보연구소는 앞으로 〈한글대장경〉〈경전속의 인물〉등 불교 DB를 구축, 다가올 2천년대의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가야산 골프장 절대 안된다"

조계종, 관련 부처 항의서한-강력 대응

법보종찰 해인총림(방장 혜암스님)이 가야산국립공원에 들어설 해인골프장 건설을 극력 반대, 저지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전 불교계가 이에 동참하는 등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해인사주지 지관스님)는 지난 3일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가야개발이 운영하는 백운동국민호텔 앞에서 고령군 덕곡면 대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장건설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족성지 가야산에 골프장 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규탄대회에 들어갔다.

이날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조계종은 정부 관련부처 7군데로 항의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또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서명운동을 결의했고 대구지역 5개 교구본사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연대키로 결정, 6.27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야개발(사장 어상영)은 현재 해인사와 봉우리 한나를 사이에 둔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의 경관이 수려한 가야산 해발 5백미터 지역에 48만평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가야산골프장건설저지투쟁위원회가 문체부에 제출한 행정심판은 지난 2일 '재심'판정이 났다.

조계종 총무부장에 법타스님 임명

공석중이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지난 3일부로 법타스님(광불협 상임부회장)이 임명됐다. 지난 65년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현재 불교시민단체협 상임공동대표, 경실련 지도위원 등을 맡고 있다.

목어

담배꽁초를 줍는 소년

중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길을 가다 엎드려 담배꽁초를 줍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걱정했다.

"당연히 착하다고 칭찬할 일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다 못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 세상에 잘 어울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자랑스러우면서도 세상이 하도 험해 착한 아들을 걱정해야 했던 그 어머니는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사회봉사가 학교성적에 크게 반영된다니까 곳곳에서 봉사와 선행을 적극 권할 것이기에.

학교성적을 위해 '억지춘향'으로 봉사에 임한다면 그 또한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익힌다면 서서히 봉사생활이 몸에 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소년소녀의 60%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기에 익힌 봉사정신은 어른이 된 다음까지 이어져 미국의 성인 절반이상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전체 고교생과 대학생의 30%가 각종 사회봉사에 나서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본지의 금주 '지상법석' 한구절을 되새겨본다.

"어릴 때부터 '천지만물이 나와 한몸'임을 가르친다면 잠재의식속에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쌓여 자기만을 위하는 혼탁한 세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교전산화 오늘과 내일 13면
부산판 특집 17~19면
금주 20면 발행

인천연수점 (032)812-9553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 체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유하고 계신분
기타 - 주유소, 대형카인테리어, 백화점 등 문의 받습니다.
• 체인사업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장 이병우

■ 사원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3. 편집 디자이너
(각항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정명창

■ ALT-X체인점
인천연수점 (032)812-9553
서울강남점 (02)556-4468
서울북부점 (02)9923640
서울구로점 (02)808-3441
의정부점 (0351)872-2192
안양점 (0343)53-9263.4
수원점 (0331)38-8280.1
대구서부점 (053)654-6204
대전서구점 (042)633-7071
전주점 (0652)74-0072
광주북구점 (062)524-4255
제주점 (064)56-2660.1

Aqnam